

북한 선교와 평화 연구

박 신배(그리스도 대학교 구약학/복지선교주임)(철학/세계관 6-5)

국문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의 문제, 탈북 상황을 소개하고 북한 선교로 평화통일을 이끄는 논의를 하는데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 선교의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의 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북한 사회의 붕괴 현상이 탈북자 현상으로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상태를 소개하고 다른 이질적 문화의 동족 선교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래서 북한 선교와 통일의 문제는 하나로 연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밝힌다. 하나님의 선교와 거시적 선교와 미시적 선교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선교의 차원을 생각하고 동시에 통일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을 통하여 통일신학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천 신학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한다. 실천의 장으로서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분단 국가였던 나라들이 통일을 한 경우를 잘 분석하여 한국도 통일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통일 선교, 평화 공동체를 위한 논의를 위해 히스기야 요시야 종교 개혁에서 나타난 제의 중앙화 개혁 개념과 구약의 개념을 사용하고 현재 일어나는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한다. 바울의 선교의 지, 한경직 목사의 통일 선교, 새터민 정착 문제 등의 특수한 상황도 소개한다. 탈북 현상을 새로운 구약의 출애굽 운동으로 봄으로서 이 새터민이 바로 통일 선교사라는 인식을 갖고 선교사 후원과 통일 선교사 만드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이 논문의 특징이다.

주제어: 새터민, 통일 선교, 새 출애굽 운동, 한민족 공동체.

I. 들어가는 말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놓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 연구와 통일한국의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왔다.¹⁾ 그간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에 통일 논의를 하며 거시적 차원의 통일 운동을 벌이는 일과 또 한편 민간 차원에서 심리적 문화적 통일 작업을 하고 통일 논의를 이끌며 미시적 통일 운동을 하는 것이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두 접근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상황, 이탈 주민의 이동 실태와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를 다루며 선교의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통일의 문제에 대하여 점진적 통일보다는 ‘들이닥치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 미 정부 당국이 향후 2-3년 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중략.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남북관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발제문에서 ‘지금부터 김정일 유고까지의 기간과, 특히 유고 후 북한 상황은 그야말로 예측불허’라면서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며 국가안보 ·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²⁾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볼 때 “통일시대가 멀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붕괴되어 가고 있고, 더욱이 경제난은 심각하여 파산 직전에 접어들었다”고들 한다. 게다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회로까지 진단되고 있다. 북한 지도층과 피지배층을 고려해 볼 때, 둘의 관계는 이미 유리되었고 이로 인해 가난과 질병으로 지도층과 교감이 형성되지 못한 피지배층은 북한 땅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증가되고 있다. 이미 북한 이탈주민은 30만을 초과했고 한국에는 3만 명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탈북자들은 늘어나고 있어서 통일이 가까웠다고 보고 통일 이후의 문제를 놓고 연구하는 저서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통일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³⁾

이상 본 바와 같이 새터민의 문제는 민족선교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고려할 때 주의 깊게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의 거주 문제는 북한선교와 통일 그리고 서로 간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직결되는 필수적으로 선결될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질화된 공산권 문화의 선교에 차원에서 통일선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⁴⁾ 그러므로 본 논문은 시대적 요청인 한반도 통일과 세계선교를 위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출애굽 현상, 즉 북한의 이탈 주민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자 한다.

II. 북한 이탈 주민 현상과 종교 문제

최근에 일어나는 북한 주민 이탈 현상은 통일 선교로 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 북한 선교에 있어서 출애굽 운동의 현상과 같이 중요한 요소로서 북한 주민의 이동을 주시하면서 통일신학의 관점과 통

1) 허호익, “한국기독교의 통일논의의 역사와 통일의 실천적 과제”,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1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85-106. 박현재, “최근 통일논의에 대한 제언”, 『동향과 전망』, (서울: 백산서당, 1990), 9-18. 정대화, “민중적 통일방안의 모색”, 『동향과 전망』, (서울: 백산서당, 1990), 85-116.

2) 신보영, “점진적 통일보다 ‘들이닥치는 통일’ 준비해야”, 『문화일보』 제5353호, (2009년, 6월 5일), 5면.

3) 서재진, “통일 한국의 사회문제 및 사회 갈등”,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61-91.

4) 김승호, “다문화권에서 신학적 개념을 나누는 상황화 모델 제시”, 『선교를 위한 문화인류학』,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이레서원, 2001),

일 선교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과 과정, 결과와 방향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자.

1980년대 들어서 등소평이 개방 정책으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상해와 대련, 청도 등에 개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반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적대국 관계로 한중 관계가 냉전 체제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폐쇄적 관계를 형성하다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중심의 국가관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었다. 공산주의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대만과 국교를 맺어 수교하던 한국 정부도 대만과 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가지면서 개방의 물결을 타고 한국의 기업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북한과의 접촉이 용이하게 되었고 조선족을 통하여 북한을 드나들게 되면서 남북한의 관계는 호전되었다.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사 정권의 냉전 이데올로기와 안보 기조는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시작되는 문민 정권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대남 관계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다. 상호 적(敵)으로 여겼던 남북이 형제 국가로 바뀌었다. 이로써 민족 통일의 숙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의 해빙(解氷)의 무드는 가속되었고, 개성과 나진, 선봉지역에 경제 특구를 마련하여 중국식 개방 경제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갖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벌이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 개방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족을 통하여 중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식량난으로 죽음의 위기에 선 사람들은 두만강을 건너려는 필사적 선택을 감행하게 되고 그것이 북한 이탈 현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북한은 자연 재해 현상으로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분단 후 무력 통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군비축적에 댄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 하였다. 시장경제를 시행하지 못하니 자연히 경쟁력 있는 국가 체제가 되지 못하고 점점 도태하는 국민 경제가 되었고, 공산주의 집단 노동 배급체제는 생산인여 구조의 부조화로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북한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하여 외교 정책을 세우고 고도의 외교 전략으로 중소, 미일 관계와 남북한 관계에서 핵무기라는 카드를 가지고 정치적 이슈를 내세우게 하였다. 고립과 봉쇄라는 미국의 맞대응은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고, 중국을 통한 외화 벌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는 중국과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알게 되었고 식량과 자본의 풍요를 동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개방 경제와 더불어 북한의 사회는 자유와 풍요의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것에 눈을 뜨게 되었고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발길이 중국 땅으로 건너가게 하였다. 혈맹 관계의 중국과 북한이 협정을 통해 탈출하는 북한 주민을 강제 호송하는 제재를 가하지만 북한 출애굽 현상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어 이탈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북한 고위층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탈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 사회도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최근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체제는 더욱 붕괴 일로로 치닫고 있다.⁵⁾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이 한반도에 불어오기도 하였다.⁶⁾

5) 유석렬, 「정세와 선교」 통권74호, (2010년 5월), 22-23쪽.

6) 노정선, “한반도 전쟁위기와 평화정착 전략”, 『폭력과 전쟁 그리고 평화』, (한구기독교윤리학회, 한들출판사, 2002), 125-142.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중국인과 조선족, 북한의 브로커를 통해 일정액의 돈이면 탈북 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이는 과거에 체제와 이념이 우선시 되던 사회에서 자본과 이익 사회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난이 불러일으킨 증후군이라 볼 수 있다. 더욱 이탈 주민은 늘어나고 있고 북한 정권도 체제하고 처형하다가는 체제 붕괴에 이른다는 생각을 하였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일부 가족들은 이탈 주민들을 통해 역으로 보내오는 돈에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어찌 보면 가족이라는 볼모를 두고 꽃제비와 이탈주민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민족 대 이동의 현상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 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통일의 문제와 민족 선교적 과제를 고찰해보자.

먼저 우리는 북한의 종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 · 김정일에 대한 우상 숭배 상징물이 북한 지역에 35,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북한은 지도자에 대한 우상 신권 체제를 철저히 강화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종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추종자 수가 1천 900만으로 세계 10대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종교인 이유에 대해서 추종자들의 삶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종교들을 배척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 틀림없는 종교라는 것이다.⁷⁾ 이 주체 사상이 인간의 배를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체제 유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이 북한 이탈 주민 현상이다.

북한의 종교 탄압 상황은 인간의 영적 갈증을 가져오고, 심리적 영적 안정을 가지지 못하는 주민들은 인간성 파괴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정을 겪게 될 것이다. 우상신권 체제 하에서 북한 주민의 영적 기갈 상태는 심각해서 북한 사회가 앓고 있는 도미노 현상들의 첫 기폭제가 사회 붕괴의 과정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는 북한 사회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대립이 혼재되어 있고, 북한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어려운 형편이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그 후 2006년부터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들어 저성장세가 한동안 지속되었다.⁸⁾ 북한은 개혁 개방을 시행하다가 최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 사회의 안정과 북한 사회에 복음전도라는 선교의 양 날개를 펼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북한 선교에 있어서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의 차원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평가하고 경색된 정치 국면을 다시 호도하여 북한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작업들과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⁹⁾ 이것이 바로 통일 신학의 거시적 차원에서 성서적 근거와 신앙의 토대를 가질 수 있고, 통일 운동으로 나가서 정부적 차원에서 통일 논의를 이끌고 더 나아가 완전한 북한 선교를 위한 민간인 차원에서 통일 운동을 벌여나가면서 심리적, 문화적 통일 작업의 지난한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시적 차원의 통일 운동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배려, 관리와 선교 훈련 등을 통해 통일 한국 시대 이후에 평화 선교사로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므로 점진적인 평화 정착과 살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다. 통일 신학과 선교에 대한 논의들은 실제적 차원의 북한 이탈 주민과 만나서 신앙 사건이 벌어질 때 통일 운동의 동력이 생기게 된다.¹⁰⁾

7) 박정란, 강동완,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선교: 미래로의 통찰적 전략 모색”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1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6-7.

8) 박정란, 강동완, 앞의 논문, 10.

9) 박정란, 강동완, 앞의 논문, 14-15.

III. 북한 선교, 통일의 문제와 신학

통일 신학에 대한 논의는 한국 신학자이면 누구나 한번 생각하는 문제이다. 이미 복음주의적 신학자나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논의를 펼쳤다.¹¹⁾ 서광선, 박종화, 박순경, 노정선, 홍성현, 손규태, 김윤옥 등과 김영한, 황현조 등이 신학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통일 신학이 한국 사회신학의 성격으로서(박순경), 여성 신학의 주제와 과제를 포괄하며 화해와 평화의 신학으로서(김윤옥), 민족신학(박종화),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 신학, 하나님의 선교 신학으로서(서광선), 민족 · 민중 지향의 신학으로서(송기득),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서, 성서의 화해 개념과 선교학의 성육신적 상황화 패러다임에 근거한 통일 신학으로서(황현조), 십자가적 정치 신학으로서(김영한)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통일신학의 개념이 한 차원 더 나아가 동서양의 신학을 통합하는 통일신학으로서, 자연과 죄의 회복과 화해의 신학으로서, 분단극복의 신학으로서, 민중과 민족의 주체적 신학으로서, 문화와 종교, 선교 신학으로서 통일 신학의 개념을 포괄한다고 본다.¹²⁾

통일 신학은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실제의 통일을 이끄는 출애굽 역사의 동력이고 되고 계기가 되는 실천(praxis)이 있어야 한다. 그 통일 운동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 현상과 그를 신학적으로 이론화 하는 작업은 중요한 통일신학의 상황적 과제라 본다. 따라서 통일 신학은 통일 선교로 이어져야 하는 실천적 작업이 남은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바울은 동족(同族) 구원의 대한 염원을 가졌다.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늘 동족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로마서9장-11장). 예수도 유대 구원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12제자를 양육하였던 것이다(마태10:5-6절). 민족 구원과 통일이 라는 과제는 바로 북한 선교와 직결되어있다.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 중국에 선교를 하였고 북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 많은 탈북 이주민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졌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새터민들이 신앙을 가지는 현상이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축복과 물질의 땅이라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몸을 팔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수반한 출애굽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자유의 땅 이전에 가나안의 세속 문화와 풍요의 여신(아세라)이 있는 땅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서 진정한 선교,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 선교의 성공은 북한 땅에 있는 지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이미 이탈한 북한 동포를 어떻게 전도하고 도와주는가에 달려있다. 이 선교의 문제는 한민족 공동체 형성과 분단의 극복, 민족화해의 길과 연관되었다.¹³⁾ 동족이지만 이질화된 깊은 골이 있는 타문화권의 선교 중에 한국 통일의 과정은 성육신적 선교의 지난한 과정이 요구된다.¹⁴⁾ 한국은 독일의 통일과정과 많은 점에서 답습하게 되고, 여러 면에서 반성하게 한다. 독일은 아직도 진정한 통일이 되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이미 통일의 노정(路程)에 들어섰다. 북한 이탈 현상은 바로 통일로 가는 구약의 출애굽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통일 운동으로 승화하느냐 하는 것은 우

10) 허호익, “한국 기독교의 통일논의의 역사와 통일의 실천적 과제”, 85-88.

11) 신옥수, “통일신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1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55-81.

12) 박신배, “통일신학과 통일 리더십: 문화신학적 접근”, 『구약의 개혁신학』, (서울: 크리스천 헤럴드, 2006), 339-347.

13) 노정선, “민족화해의 신학을 위하여”, 『이야기 신학』, (서울: 한울, 1993), 181-235.

14) 폴 히버트, 김동화외 3인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2001), 127-155.

리의 통일 과제이다. 한국의 교회가 중국 선교에 나선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북한 선교의 방향으로 집중하고 제의 중앙화 작업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약의 제의 중앙화(Cult Centralization)는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 시대에 외세의 침입이라는 국난(國難)에서 제의 중앙화를 통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여 독립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¹⁵⁾ 이 제의 중앙화 운동이 한국 교회에도 필요 한 것이다. 북한 선교라는 제의(예배)중앙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선교 단체가 형성되고 이를 위해 한국인의 특성인 분열성을 제어(制御)하고 초교파 범교계적 차원에서 통일 선교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기독교 통일 선교회가 한경직 목사의 유언을 따라 조직되었고,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 햇볕 정책은 남한의 정권이 바뀌니 원점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다. 지속적인 북한을 향한 기도와 선교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그 분이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분단 체제로 살아가면서 민족의 동질성이 사라지고 있는 때에 통일의 노력은 시급하고 긴요하다. 가조 선교회나 북한 선교회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남한에 있는 북한 동포를 통한 간접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의 날은 올 것이고, 건잡을 수 없는 자유의 물결이 북한 사회를 뒤덮을 것이다. 통제와 감시체제의 그 물망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운동이 해방의 기쁨을 줄 것이다.

통일은 체제의 연합의 차원보다도 문화의 통일이 중요한 것이다. 형제의 연합과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 인프라 구축 등이 하드웨어적 문제라고 하면, 북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문화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문화 등 상호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고 교류하는 문화의 선교가 소프트웨어적 통일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많은 부분 햇볕정책의 결과로 교류가 되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폐쇄적 남북한 관계가 열리게 되었다. 다시 역사의 시계추 작용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보수성으로 경직된 남북 관계가 되었지만 다시 남북의 창은 열리고 갑작스런 교류의 물꼬가 터지리라 예상된다.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민족을 모으고 연결망을 갖고 통일의 세대를 준비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통일의 작업에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주체 체제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임희모 교수는 북한 교회의 계약 이행을 도울 남한 교회의 계약적 과제 넷을 제시한다. 첫째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함으로써 이미 파기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와 더불어 역사적 죄책 고백과 계약 갱신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그래서 계약 갱신을 위한 축제적 성찬을 거행하길 제안한다.¹⁶⁾ 둘째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는 남북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교류, 대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간에 계약 갱신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 교회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공주의 우상숭배와 이로 인한 인권탄압 방조, 자본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편승, 무차별적 서구 기독교 수용에 의한 토착문화 경시와 파괴 등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성을 통한 북한 교회는 남한 교회의 선교적 지원과 연대를 수용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 있고 있다고 해도

15) 박신배, 『구약의 개혁신학』, (서울: 크리스천 헤럴드, 2006), 76-80.

16) 임희모, 앞의 책, 220.

무형의 형태이기에 거의 존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탈북자들의 공동체가 북한 교회로 보고 재통일의 과정에서 그들이 북한 교회의 실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한 교회는 한반도에서 살림(계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남한 내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약을 실현하여야 한다. 민주적 참여적 연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계약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남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살림 계약을 한반도에서 이루기 위하여 기도예 전념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가 회개 운동을 벌여 금식기도로 죄의 철저한 회개를 실시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결을 도모한다. 십일조로 북한 교회의 자주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통일 헌금을 모을 수 있다.¹⁷⁾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통해 진정한 문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비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새로운 교회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북한 교회 생성과 건립, 건축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북한 교회의 현실은 모판 작업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내기 작업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그 모판이 되어 한국에서 정착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 이주민들은 통일부 하나원의 8주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편입되고 있고 있다. 월 수익 100만원 이하의 최저 생활을 하고 있다. 다국적 아시아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사는 것이 남한과 북한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고, 이 상호 문화 이해를 통한 선교사 양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주한 새터민들이 바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새터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민족 선교와 봉사의 대명제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¹⁸⁾ 새터민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성취해야할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사적 의의에 있어서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가 새터민 선교사라는 인식 단계가 선결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시적 선교 공동체의 틀에서 새터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자. 통일의 문제는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 폴 레만(Paul Lehman)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치를 하신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져야 하는 현실성을 말한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나라의 장소나 공간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관계 안에 이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은 바로 정치성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의 정치적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평화와 화해와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¹⁹⁾ 하나님 나라 신학은 정치 신학으로 일제 시대와 분단 시대를 거치면서 독립과 통일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신앙과 실천으로 나타난다.

17) 임희모, 앞의 책, 222.

18) 이를 위해 그리스도 대학교의 남북 통합지원 사업의 연구보고서는 새터민 정착과 정부지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남북통합지원 특성화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및 육성방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대학생 전문인력 양성방안, 북한이탈주민 입국규모와 통일대비 관련 사회복지 인력 수요처 조사분석, 평양과 기대 내 국제 다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새터민의 정치 · 행정적 위상 탐색).

19) 서광선, “하나님 나라”,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41집, (기독교학회, 2005년), 113.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 하나님 나라 정치 신학의 문제가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의 정치적 문제들, 우리가 옳고 바르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사는 문제들, 우리 현실의 고난 속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몸부림과 저항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울부짖음의 passion으로 머물지 않았다. 우리의 정치신학은 행동과 실천의 행위신학(theopraxis)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오늘의 정치적 행동과 실천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함께 이 땅위에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역자이며 협력자이다.”²⁰⁾

오늘 우리가 당면한 평화 통일의 문제는 제국의 문제와 연관되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6자 회담 상대자들, 오늘의 제국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등 강대국의 이해 관계와 맞물려 있다. 우리의 세계화, 통일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들과 특히 미국 제국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신학이 요청된다.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제기하는 정의(righteousness) 문제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요구된다. 세계가 불평등하고 부와 교육 의료 혜택이 편중되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이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제는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며, 나누어 가짐과 돌봄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화는 오늘날 독점적 이고 독선적인 제국이 그 야망을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온 세계의 민중과 하나가 되어 일할 때 희망이 있다.”²¹⁾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세계, 지구촌 곳곳에 하늘의 양식이 주어지는 공간,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바로 그 나라인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의 평화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실현되는 것이다. 강원돈은 평화 형성을 위하여 윤리적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의와 약자를 위한 기준, 균형과 전쟁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기준 등을 제시한다.²²⁾

통일 신학의 근거를 구약 성서에서 찾는다면 분열 왕국시대, 히스기야 · 요시아 시대의 제의 중앙화 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²³⁾ 히스기야는 앗시리아 침공에 대비하여 종교적 정치 경제적 목적을 통한 제의 중앙화 운동으로 나라의 독립을 도모하였고,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한 국권을 회복하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제의 중앙화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남북한이 분단된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여 많은 신학적 통찰력을 준다. 또한 이미 통일 신학에서 많이 논의된 회년 사상은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념적 배경을 형성한다. 구약의 회년법에서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포로기와 포로 귀환 시대의 신학적 개념에서 나라의 회복과 평화에 대한 사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윗 ·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 시대의 신학을 통해 통합과 균형을 통한 이스라엘의 평화를 도모하는 신학적 이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구약 정경화 과정에서 보는바 유대교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경화 신학과 정경화 시대 신학을 통하여 많은 전승의 통합의 유익과 전통의 통일과 종교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구약 정경화는 유대교를 형성하는 동기가 되고 나중에 시오니즘 사상을

20) 서광선, 앞의 논문, 120.

21) 서광선, 앞의 논문, 121.

22) 강원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평화윤리적 접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112-115.

23) 박신배, 『구약의 개혁신학』, 11-95.

가져와 현대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IV. 한민족 공동체와 평화 작업

한반도에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며, 전쟁이 없는 상황으로 비무장 전쟁 방어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평화는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고,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강한 군사력과 국력에 바탕 둔 상태에서 유지된다.²⁴⁾ 한반도에서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과 남북 평화 번영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 평화 정착을 이끄는 길임을 주지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의 길로 나가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 대화이다. 식민 통치와 강제 분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남북 정상의 만남이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의 만남과 공동 성명의 발표는 1945년 분단 이래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자 평화 통일의 첫 걸음이 열린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극복하고, 통일 방식을 수렴해가면서, 우리 힘으로 자주적 통일의 문을 열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남한은 북한이 경제 발전을 적극 도와나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경제로서 하나가 되는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²⁵⁾ 그러나 이 길을 미국과 일본은 강대국은 원하지 않는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국가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의 방식은 단계적, 평화적으로 남북 합의와 두 체제가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²⁶⁾ 그리고 독일의 통일 수순을 보면서 통일 논의와 작업을 천천히 빈틈없이 진행해 가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위하여 먼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해야 한다. 그것은 먼저 세계 비핵지대화를 선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핵 강대국들과 파키스탄, 인도 등 핵무장국가들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고, 또 준핵보유국 등이 핵무기를 폐기시키도록 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비핵화 작업과 더불어 경제력을 통한 힘의 축적이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 평등하고 호혜적인 균형질서와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평화 질서, 예방적이고 규제적인 안정질서 등 한반도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선결요건이다. 더욱 강대국의 욕망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동 장치와 전략과 힘, 경제 통일 구조와 예방 경제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²⁷⁾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전략적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모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대하며 새 역사의 물결과 민족 공동체 형성 운동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거대한 새 출애굽 운동은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땅은 다문화 공동체가 되었고, 아시아의 미국과 같은 나라로 아시안 인이 가고 싶은 꿈의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국가 체제와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주도하는 나라와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에 들어 온 다문화 가정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고,²⁸⁾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공동체를 다

24) 송대성, 『한반도 평화확보: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5), 24-48.

25) 노정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언』, (서울: 동연, 2008), 120-121.

26) 김육, “통일 이후의 정치 문제: 미시적, 경험적 시각에서의 분석”,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5-7.

27) 노정선, 앞의 논문, 141-144.

28)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2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5-33.

시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이념과 가치가 필요하며 한국민의 전통적 종교적 신념이 필요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기념과 회당의 랍비 교육이 구심점이 되어 유대인 의식을 고취하며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한편, 분단 국가였던 독일과 예멘, 베트남의 통일과정을 보고 새로운 한반도 공동체와 세계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이념과 공동체 운동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치(ecumenical)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민족 공동체의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인식하고 디아스포라 공동체(한인 교회)를 통하여 한국인 통일 선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통일 선교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공동체 형성은 부작용을 일으킬 요소가 있어서 민간인 공동체를 통하여 한민족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⁹⁾ 이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세계 교회 한민족 공동체를 통하여 북한 동포를 돕는 운동이 벌려야 할 것이다.

새터민의 생존권 모색의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선교 공동체 형성의 차원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가 이 북한 선교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희모는 남한 교회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남한 교회는 대북지원을 위하여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차원에서 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한다. 둘째 남한 교회는 조그런을 대북 창구로 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긴급구호적 지원과 개발 구호적 지원을 실시한다. 남한 교회는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개발 구호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북한에서의 교회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북한 선교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 혹은 북한 기독교 NGO(조그런)에 개발 구호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조그런이 기독교 선교적 NGO 역할을 하도록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조그런이 에큐메니칼 연대와 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의 Amity Foundation의 예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장한다. 넷째 남한 교회는 이러한 대북 사회복지 지원 선교가 궁극적으로 북한 교회 세우기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해야 한다. 남한 교회는 장기적으로 기다림의 선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³⁰⁾

북한 선교의 차원에서 아시아 선교의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필요하다. 이것은 동시에 북한 선교와 아시아 선교를 동시에 이루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복음이 통일 선교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세계 선교를 가능하게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할 것이다. 새터민과 아시아 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혈연(인종)과 지연을 초월한 새로운 한국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길일 것이다. 이 길이 통일로 가는 복지선교의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다.

더 나아가 통일 신학의 근거를 구약의 회년 사상에서 찾고 논의했던 바대로 한반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평화가 임하는 일과, 고난의 신학(해방), 하나님 나라 신학을 더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³¹⁾ 이 일을 추구하는 일과 동시에 구약의 포로귀환 신학을 통해 회복과 평화 논의를, 다윗 솔로몬 시

29) 박정란, “서독의 민관 지원이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주는 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17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년), 107-152.

30) 임희모, “한국 교회의 북한 사회복지 선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선교』 (서울: 다산글방, 2003), 158-159.

31) 신옥수, “통일 신학의 어제와 오늘”, 63-77. 송기득은 하나님 나라는 민주화와 통일이 실현된 세계에 대한 하

대의 역사를 통해 통합과 균형, 평화의 신학을, 구약 정경화 시대와 신학을 통해 통합의 이론을, 후기 유대교를 통해 전승과 전통의 통일, 종교간 평화를 가져왔고, 나라 없이 떠도는 2000년간의 유랑을 마감한 시오니즘의 사상은 유대인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었다. 이제 한반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은 종말론적인 지평에서 선교의 의미로 해석되고 선교사적 지평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될 수 있음을 주지의 사실로 보아야 한다.³²⁾ 또한 통일을 이끌 신학의 근거를 찾고 복음적 평화 신학의 근거를 더욱 발전시키고 실제로 적용하여 실천의 장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새터민의 탈북 원인과 현상을 살펴보고 북한 선교와 평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새로운 출애굽 운동은 통일 한국에 중요한 현상임을 알았다. 통일 시대를 여는 중요한 단초가 바로 새터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들이 북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한의 통일이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음을 분류하고 문화적 상호 이해와 문화적 선교가 중요한 통일의 과정임을 밝혔다. 이 문화의 통일이 진정한 통일임을 각인하였다. 이 통일 선교를 위해 디아스포라 한국 공동체와 한국의 다문화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 형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제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운동을 벌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통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살폈다. 따라서 한반도 복지국가 건설을 통한 선교, 구체적 복지선교 운동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복지 선교의 정책적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통일 신학은 통일 운동과 실천으로 나가는 통합적 신학이어야 하며, 진보 진영과 복음적 보수 신학자들이 함께 하는 선교작업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통일신학과 평화 신학은 계속 전개되어야 하고 앞에서 다룬 통합적 통일신학 위에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연구하였다. 세계의 평화 문제가 한국의 통일과 다문화 가정, 종교 신학에 있다는 사실을 이 논문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나의 표징이다. 허호익은 민족 통일 신학이 다루어야 할 과제는 분단 상황이 빚어낸 삶의 포괄적인 고난의 영역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데이비드 보쉬저, 김병길 · 장훈대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0), 734-749.

참고 문헌

-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 강원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평화윤리적 접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집, (한국 기독교학회, 2009).
- 김승호, “타문화권에서 신학적 개념을 나누는 상황화 모델 제시”, 『선교를위한 문화인류학』,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이레서원, 2001.
- 김옥, “통일 이후의 정치 문제: 미시적, 경험적 시각에서의 분석”,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 노정선, “민족화해의 신학을 위하여”, 『이야기 신학』, 서울: 한울, 1993.
- 노정선, “한반도 전쟁위기와 평화정책 전략”, 『폭력과 전쟁 그리고 평화』,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들출판사, 2002.
- 노정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안』, 서울: 동연, 2008.
- 데이비드 보쉬저, 김병길 · 장훈대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임희보, “한국 교회의 북한 사회복지 선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선교』, 서울: 다산글방, 2003.
- 박신배, 『구약의 개혁신학』, 서울: 크리스천 헤럴드, 2006.
- 박신배, “통일신학과 통일 리더십: 문화신학적 접근”, 『구약의 개혁신학』, 서울: 크리스천 헤럴드, 2006.
- 박정란, 강동완,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선교 미래로의 통찰적 전략 모색”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61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 박정란, “서독의 민관 지원이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주는 함의”, 『북한이탈 주민 지원방안』, 17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 년).
- 박현채, “최근 통일논의에 대한 제안”, 『동향과 전망』, 서울: 백산서당, 1990.
- 서광선, “하나님 나라”,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41집, (기독교학회, 2005년).
- 서재진, “통일 한국의 사회문제 및 사회 갈등”,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 신옥수, “통일신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1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 신보영, “점진적 통일보다 ‘들이닥치는 통일’ 준비해야”, 『문화일보』 제5353호, (2009년, 6월 5일), 5면.
- 유석렬, 「정세와 선교」 통권74호, (2010년 5월).
- 정대화, “민중적 통일방안의 모색”, 『동향과 전망』, 서울: 백산서당, 1990.
- 폴 히버트, 김동화의 3인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2001.
- 허호익, “한국기독교의 통일논의의 역사와 통일의 실천적 과제”,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1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Abstract

North Korea Mission and Peace

Park, Shin-Bae (Korea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heology of Old Testament/ Social Welfare Mission
Korea Christian Univ.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Exodu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Peninsula of Korea, so that exiled people are lead to a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We insist that the Exodus of the North Korean is to be interpreted in the new perspective of the northern mission, It has developed into unified Korean, Korean Diaspora of the World, as they participated in a Peace mission. So, here is to pursue making a source of the North Mission in a new view of SAETERMIN(the new exiled Korean) problem, building a tool of Peace unifying Korean Diaspora.

We introduce that the New exodus from North Korea is result from destroying the Northern society, many people are coming to South Korea abruptly. Thus this Mission to the North is like to other culture country, even though they are same ethnic, they are another people. So, the issue of North Korean Mission and Unification is to show an important theme connected to each other. We try to search a way of unifying through the Missio Dei, Macro Mission of Public government, and Micro Mission of national people.

For the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theological way is to prepare Tongil Theology(Unification), more to act as a practical ground. Therefore, if we face the Unification country in Peninsula, we should considerably make peaceful country after considering on national ethnic community.

We find out the idea of Cult centralization of the Old Testament with Hezekiah and the Josiah Reformation, we also use the O.T. theological Idea in order to the fulfill Tong-il Mission and make a Peaceful Community. This thesis appears as also Paul' Mission. A Korean famous pastor, Han Gung-Jik, and Satermin(Exiled People) Settles a Special Situation etc. Especially the character of this thesis persist that the New Exodus is understood to support them which is making Tong-il Missionary.

Key Words: Satermin(Exiled People), Tong-il Mission, New Exodus Movement, Hanminjok(Korean) Community, Tongil Theology(Unification).

북한 선교와 평화 연구

박 신배(그리스도 대학교 구약신학/복지선교주임)
조교수

North Korea Mission and Peace

Park, Shin-Bae (Korea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heology of Old Testament/ Social Welfare Mission
Korea Christian Univ.

연락처: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신학대길 63

2600-2562, 010-7795-4475, shbpark@naver.com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